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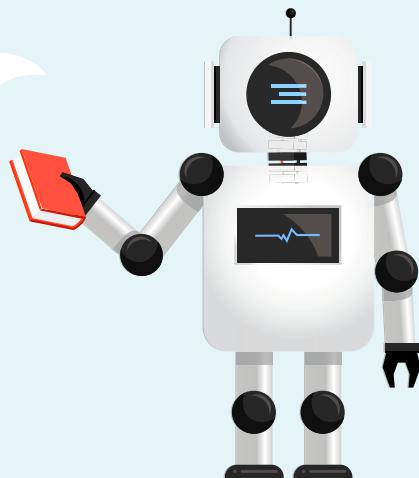
로봇개발자가 독서광이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서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영감을 얻으며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빌게이츠도 소문난 독서광 중 한 사람이지요. 다산 정약용, 빈센트 반 고흐 등은 지금까지도 독서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난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직업인 중에도 책과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개발자’입니다.

책을 통해 문제 해결의 힌트를 얻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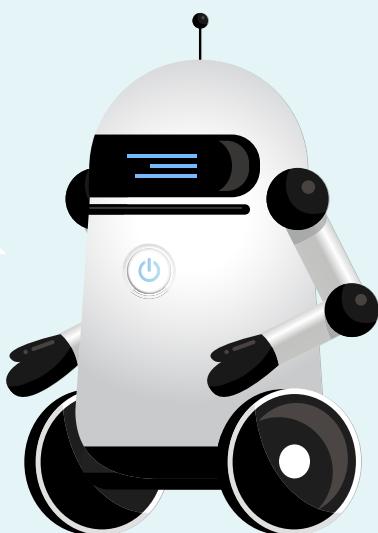
연구원 최○○ 씨는 로봇을 개발하는 과정이 마치 게임과 같다고 말합니다. 게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쓰는 것’처럼 로봇 개발에도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기, 또 동료와 의논하며 협업하는 과정들이 그 예입니다.

최○○ 씨는 동료와 대화하거나 스스로 생각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책 읽기’라고 강조합니다. 독서를 통해 문제에 파고드는 힘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혔으나 그리운 감성을 로봇으로 전달해요

엔지니어 하○○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 잊어버린 감성을 돌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을 개발해 개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에 인문학을 공부하며 독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로봇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는 로봇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연구합니다. 그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에 온화한 미소를 띠는 로봇에 멈추지 않고, 더 감성적인 로봇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토리를 부여하면 새로운 로봇이 탄생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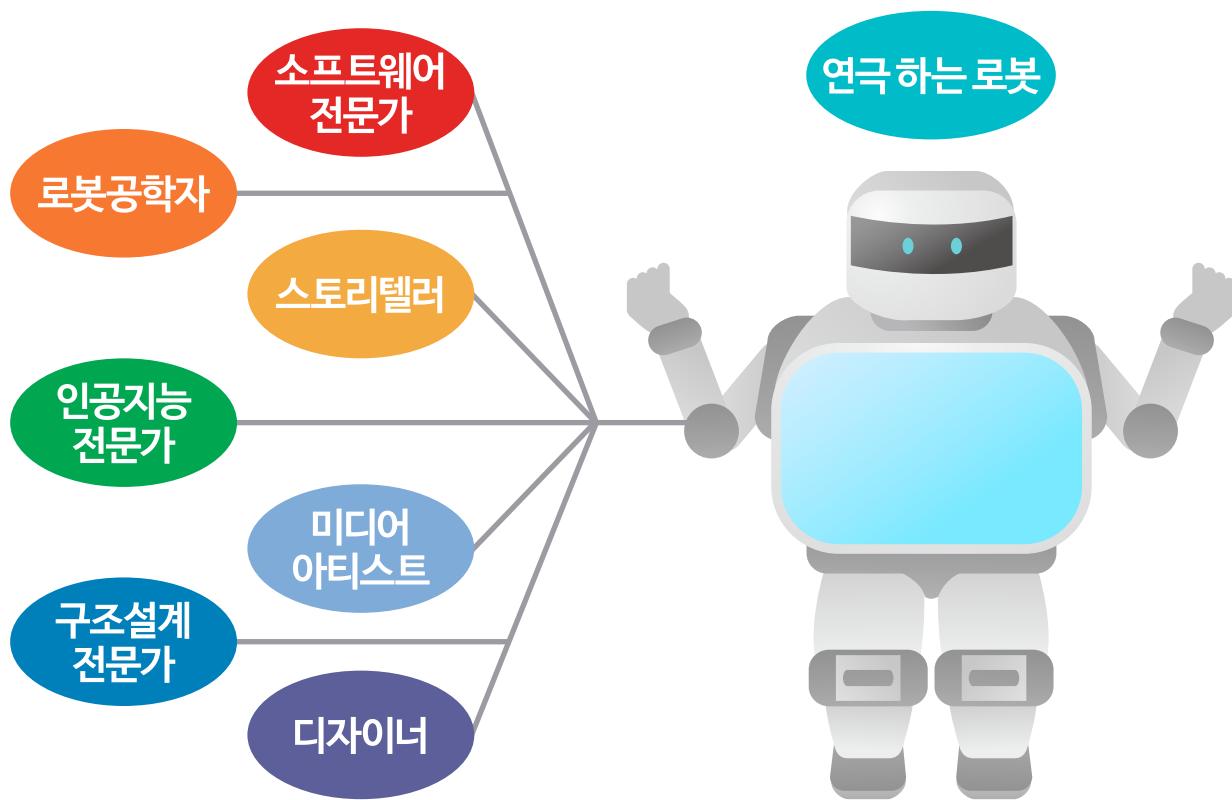
로봇이 설거지를 해 주면 어떨까요? 또 로봇이 스키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스키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로봇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만큼 다양한 형태와 모습,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대상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체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떤 직업인에게서 나올까요?

몇 명이서, 누구와 로봇을 개발하나요?

로봇은 다양한 직업인들이 힘을 합해 개발합니다. 만들고 싶은 로봇의 종류와 특징, 기능에 따라서 로봇 연구팀의 구성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로봇공학과 교수이자 로봇개발자 한○○ 씨는 로봇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이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몇 명이서, 누구와 로봇을 만드니?”라고 묻곤 합니다. 학생들에게 로봇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실습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스토리텔러가 로봇을 만들 수 있나요?

로봇을 만드는 팀원들은 여러 분야의 직업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장점을 발휘합니다. 이때 스토리텔러는 로봇개발팀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텔러는 로봇에 이야기를 부여함으로써 로봇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로봇에는 어떠한 스토리가 숨어있나요?



나와 우리의 미래 이야기 ‘나우미래’에서 로봇개발자 한○○ 씨를 만나보세요. 로봇 개발팀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 e도서관 > 학부모TV > 동영상 > ‘로봇’ 검색 >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 – 한○○님’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TV 바로가기 ▶](#)

